

# 조성진 “환갑 맞은 LG, 틀 깨고 젊은 도전 보여줄 것”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AI·빅데이터 등 융·복합시대 선도 실패해도 도전하는 조직문화 다짐  
시장서 인정받은 올레드 TV 뿌듯  
로봇 사업 향후 새로운 사업될 것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레드 TV의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LG전자

“LG전자는 올해 환갑(60주년)입니다. 새로이 태어난다는 의미처럼 기존 틀을 깨고 도약하는 해를 만들겠습니다.”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레드 60주년을 맞은 LG전자의 비전을 이 같이 밝혔다. 조 부회장은 “지난해 LG전자는 수익성을 전제로 성장하겠다는 기조 아래 운영됐지만 올해는 창업 정신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해 LG전자는 수익성을 전제로 성장하겠다는 기조 아래 운영됐지만 올해는 창업 정신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외부(기업)와의 협력을 통해 융·복합 시대를 선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젊고 생기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CES를 돌아본 조 부회장은 “AI가 제대로 잡고,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LG전자도 이번 전시회에서 일상생활에서 AI가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나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최근 선보인



LG전자 대표이사 CEO 조성진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에 마련된 LG전자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AI 브랜드 ‘씽큐(ThinQ)’를 전면에 내세워 전시장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선도기업 이미지를 내세웠다. 조 부회장은 OLED(올레드) TV 진영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자신했다. 올레드 진영은 2015년 4개, 2016년 8개에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는 “올레드 TV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대체가 됐다”며 “(현장에서) 만난 거래처들에게도 올레드가 완전히 대체로가 잡아갈 것이라 확신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같이 참석한 권봉석 LG전자 HE사업본부 사장은 “지난해까지 올레드 TV 진영에 가세한 TV 제조사는

13개였지만 올해는 2개사 추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또 권 사장은 올레드 진영의 확대에 대해 “시장에서의 높은 평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올레드 TV는 12개국에 집중했는데, 이들 국가에서 올레드 TV가 화질에서 1위의 평가를 받았다”며 “우리의 평가보다 시장의 평가가 중요한데, 올레드가 차원이 다른 화질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한편, 조 부회장은 로봇 사업이 2~3년 내에 LG전자의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 것으로 봤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서빙 로봇, 포터 로봇, 쇼핑카트 로봇 등 로봇 3종을 선보였다.

MC사업본부가 2000억원대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적자다. 조 부회장은 “(상반기 G시리즈와 하반기 V시리즈 출시하는 것에 대해) 변화를 주려고 한다”며 “좋은 플랫폼을 오래 끌고 가는 전략으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나 앱이나 카메라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가져갈까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의 제품 출시와 무관하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리미티드 에디션 시그니처 폰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얻었다고 본다”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브랜드를 정리하겠지만 아직 정리된 것은 없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오는 2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 부회장은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공급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현시 유통선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고민하고 있고, 그 시나리오 중에는 LG전자의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완공 목표를 당초 2019년 2월에서 올 4분기 당기는 것도 있다”면서 “당장 다가올 미래라 내부적으로는 대비책이 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손영권 “하만과의 협업, 긴 여정의 시작”

(삼성전자 사장)

미래車, 스마트폰처럼 연결성 중요  
오픈 플랫폼으로 협업 필요 강조



미국 라스베이거스 하드록 호텔 내 하만 전시장에서 손영권 삼성전자 전략혁신센터(SSIC) 사장(오른쪽)과 디네시 팔리웰 하만 대표이사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손영권 삼성전자 사장(CSO·최고 전략 책임자)이 “하만과의 협업은 단거리가 아닌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성장성을 강조했다. 손 사장은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했다. 손 사장은 “삼성전자는 하만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CES에서 3분야의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하만의 전장분야에 대한 이해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하만과의 협업을 본격화했다. 공동 개발한 ‘5G-레디 TCU(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를 비롯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콕핏’,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라인(DRVLINE)’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5G 아래 서비스 될 TCU는 자동차를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된 핵심 장치다. 디지털 콕핏은 차량용 AI 비서 ‘빅스비’와 ‘스마트싱스’가 적용된 것이 특징으로, 운전자는 디지털 콕핏을 통해 음성만으로 집안 기기를 제어하고, 동승자는 초고화질 드라마를 집 안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드라이브라인 플랫폼은 자동차 업체,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가 각각의 니즈에 맞게 자율주행에 주요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와 부품,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자동차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확장성을 지닌 모듈화된 자율주행 솔루션이다. 디네시 팔리웰 하만 대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삼성전자가 하만과 협업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협업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놀랄 일”이라고 강조했다. 팔리웰 대표는 “사용자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면에는 복잡한 기술력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손 사장과 팔리웰 대표는 특히 드라이브라인 플랫폼이 삼성전자와 하만의 전장 분야에 대한 운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드라이브라인은 삼성전자의 전장 분야에 대한 의지”라면서 “미래차는 섬이 아닌 휴대폰처럼 모든 것이 연결돼야 한다. 자율주행은 회사의 고유한 기술로 만든 걸고 이를 수 없다”며 오픈 플랫폼으로 협업해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팔리웰 대표도 “이번 CES에서 (고객사들과의 만남에서) 드라이브라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오픈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 개방해 기술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 美 지상파 진출... 싱글레이와 맞손

SKT 차세대 방송산업 주도 MOU  
ATSC 3.0 기반 플랫폼 공동 개발



마크 에이킨 싱글레이 방송 그룹 부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싱글레이 방송 그룹 차세대 원미디어의 케빈 게이저(왼쪽부터)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미국 최대 규모의 지상파 방송사인 싱글레이 방송 그룹과 차세대 ATSC 3.0 방송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SK텔레콤과 싱글레이는 ‘CES 2018’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차세대 ATSC 3.0 방송산업 주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미국에서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제정된 ATSC 3.0 기반의 방송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 이후 미국에서 차세대 방송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상용서비스도 론칭할 계획이다. 싱글레이는 미국 전역에 173개 TV 방송국과 514개 채널을 보유한 미국 최대 규모의 로컬 지상파 방송사다. 지난해 싱글레이의 매출은 약 27억 달러다. 2016년 가구 기준 시청점유율도 40%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으로 자사의 모바일 인터넷TV(IPTV)·미디어 기술이 미국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미국을 시작으로 차세대 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등으로 ATSC 3.0 기반 방송플랫폼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싱글레이는 올해 상반기 중 차세대 ATSC3.0 방송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가 개발하는 차세대 방송 플랫폼은 ▲UHD 콘텐츠 ▲IP 기반 시청자 맞춤형 서비스 ▲개인 및 지역별 맞춤형 광고 서비스 ▲고정형·이동형 모바일 방송 ▲지역 기반 재난 알림 서비스 등이다. 기존 지상파 방송에 IPTV와 모바일의 장점이 결합됐다. 특히 양사는 SK텔레콤의 모바일 IPTV·미디어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차세대 고화질 영상의 초저지연 전송 기술인 MMT(MPEG Media Transport) 표준과 모바일 환경의 장점을 살린 모바일 MMT 응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올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 장비 전시회인 ‘NAB(전미방송협회) Show 2018’에서 차세대 ATSC 3.0 방송 플랫폼 및 응용 서비스를 최초로 시연할 계획이다. 양사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차세대 방송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플랫폼에 지속 반영해 상용서비스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글로벌 방송산업 진출도 양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인도 등이 ATSC 3.0 표준 기반 방송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싱글레이와의 협력으로 SK텔레콤의 미디어 기술이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방송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SK텔레콤과 글로벌 사업자들의 핵심 인프라를 공유해 고객들이 생각치 못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에이킨 싱글레이 방송그룹 부사장은 “SK텔레콤의 모바일 IPTV, 모바일 MMT 상용 기술과 싱글레이 방송그룹이 지향하는 차세대 방송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북미 고객에게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연 기자 silkni@

## 바디프랜드 몸 넘어 뇌까지 마사지...CES 첫 선

‘렉스엘 플러스’ 소개

바디프랜드가 뇌 힐링이 가능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바디프랜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8’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이번이 두 번째 참가다. ‘렉스엘 플러스’ 안마기에 장착된 이 기능은 두뇌 혈액 공급 마사지와 바디프랜드 메디컬 R&D 센터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한 ‘바노노럴 비트’ 음악으로

뇌 피로 감소를 돕는다. 바노노럴 비트는 두뇌에서 인지하는 제3의 소리로 뇌 휴식,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초반에 낮은 주파수로 시작해 후반에는 높은 주파수로 안정상태와 각성효과를 높인 ‘브레인 집중력’, 주파수를 점차 낮아지게 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브레인 명상’ 두 가지로 구성된다. 바노노럴 비트에 혈 자리를 자극하는 마사지 기능도 뇌 마사지 기능 효과를 배가시킨다. 이번 렉스엘 플러스는 국내 및

해외 매장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조수현 바디프랜드 메디컬R&D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브레인 마사지를 받은 경우 집중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언어적, 비언어적 장·단기 기억력이 향상된 동시에 정신적 피로의 회복력이 일반적인 휴식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이번 CES를 통해 북미 시장 광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에 2개 직영점이 위치해 있다. 이후에도 미국 서부지역으로 직영점을 늘릴 계획이다. /임현제 기자 ihj@